

정책분석과 동향



미국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 주택 모델과 시사점
박소정·류병주

미국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 주택 모델과 시사점

Senior Housing with Supportive Services for Low-income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박소정 |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 부교수
류병주 |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쿨 석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돌봄 부담 문제로 인해 노인의 시설 조기 입소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연계 주택'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주택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의 주거 모델과 관련 체계 및 여러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입주민 욕구 파악과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자원 조직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인 '서비스 코디네이션'의 개념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정부 부처 간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주거와 보건복지서비스의 분절적 제공을 예방하는 미국의 협업 사례들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들어가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 그리고 주거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40%에 육박할 만큼 급격한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1a),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 해당한다(OECD,

2021).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등 사회적 차원의 돌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노인 돌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시설 조기 입소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Aging in Place)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1) 'Aging in Place(AIP)'는 "노인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집 또는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친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좋은 죽음(well-dying)을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2017).

방향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b).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노인은 83.8%였고,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해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 노인은 56.5%를 차지했다(이윤경 외, 2020). 노년기에는 건강 및 경제 수준, 가구 형태 등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며, 주거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부 활동의 반경이 줄어들어 따라 지역사회와 생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Lawton, 1990a). 따라서 노년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속적인 돌봄 환경 조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과 시설돌봄 사이에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의 대안적 주거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강은나, 주보혜, 이재춘, 배혜원, 2019).

지역사회 기반의 대안적 주거 모델에는 배리어 프리 등과 같은 물리적 편의 환경 조성과 더불어 주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기능이 탑재된 유형이 포함된다(김유진, 박순미, 박소정, 2019).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이 대표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²⁾ 그러나 양로시

설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시설은 인력,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유료 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자복지주택은 주택 공급량 증가에는 기여했지만 입주 노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순미, 김유진, 박소정, 2017). 아울러 정부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주택 관련 조례 제정 등 주거를 중심으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과 서비스 지원의 주무 부서가 다른 데서 오는 혼란, 서비스 대상과 내용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부재와 같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김유진 외, 2019). 기존 주거 모델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화형 서비스 결합형 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예: 서울시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 서울시 금천구 보린주택, 성남시 아리움), 이는 특정 지역에 한해 운영된다(서울특별시청 어르신복지과, 2020; 이상림 외, 2016).

미국에서는 노인의 의료,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공공의료지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재가복지서비스와 요양시설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주거 모델을 공급해 오고 있다(Spillman & Black, 2005). 이 글에서

2)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용어적으로 '시설'로 정의되나, 미국에서는 장기요양시설을 제외한 모델은 AIP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 유형으로 주로 분류된다. 이 글은 AIP 지원을 위한 미국 내 서비스 결합형 주거 유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특성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고려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도 AIP 지원을 위한 주거 유형으로 간주한다.

는 우리나라 저소득 노인의 AIP 지원을 위한 주거 대안을 개발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의 서비스 연계 주택 유형과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생태노년학 이론과 개인-환경 적합성 관점에 따라 미국 내 노인 주거 모델을 유형화한 개념적 모형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개괄하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 주택 유형과 주요 기능을 검토하며, 주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연계·협력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저소득 노인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

2. 주거 기반 AIP 개념도

이 글에서 제시하는 주거 기반 AIP 개념도(Housing-Based AIP Framework)는 노년기 삶의 질이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이를 둘러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태노년학 이론(Ecological Theory of Aging)에 근거를 둔다(Lawton, 1990b). 해당 이론은 개인-환경 적합성 관점(Person-Environment Fit Perspective)으로 불리기도 하며, 개인적 특성에 환경이 적절한 수준으로 부합(Fit)하는지 여부가 AIP에 중요할 수 있다(Lawton & Nahemow, 1973; Wahl, Iwarsson, & Oswald, 2012). 개인적 특성은 노인의 건강 수준, 독립생활 수행 능력 등의 건강

관련 특성과 연령·성별·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까지 포함한다(Lawton, 1982). 환경적 요인은 물리적·사회적·문화적 맥락까지 포함한 다차원적 요인으로서 미시적(노인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 내 특성), 중시적(마을, 지자체 등 주거공간이 위치한 지역사회 단위의 특성), 거시적(정부 정책, 경제 상황 등 국가 단위의 사회·경제·문화적 요소)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Lawton, 1989, 1999).

개인-환경 적합성 관점에 따라 노인이 어떤 주거 유형에 거주하는지가 AIP에 중요할 수 있으며, 기존 문헌에서는 주거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인 주거 유형을 일반 주택과 요양시설로 이원화하여 분류했다면, 현재는 주택에 제공, 연계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일반 주택과 요양시설 사이에 다양한 주거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Andrews & Phillips, 2004). Faulkner, Beer, & Hutson(2006)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택에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일반 주택, 비지원 주거 유형(주택 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식사, 생활, 안부 지원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 유형), 지원 주거 유형(주택 내 24시간 모니터링, 방문간호서비스 등 요양시설 정도는 아니지만 이에 준할 정도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총 세 가지의 주거 유형을 제시했다. Faulkner et al.(2006)의 유형 구분에 더해 en Henegouwen(2019)은 네덜란드 주거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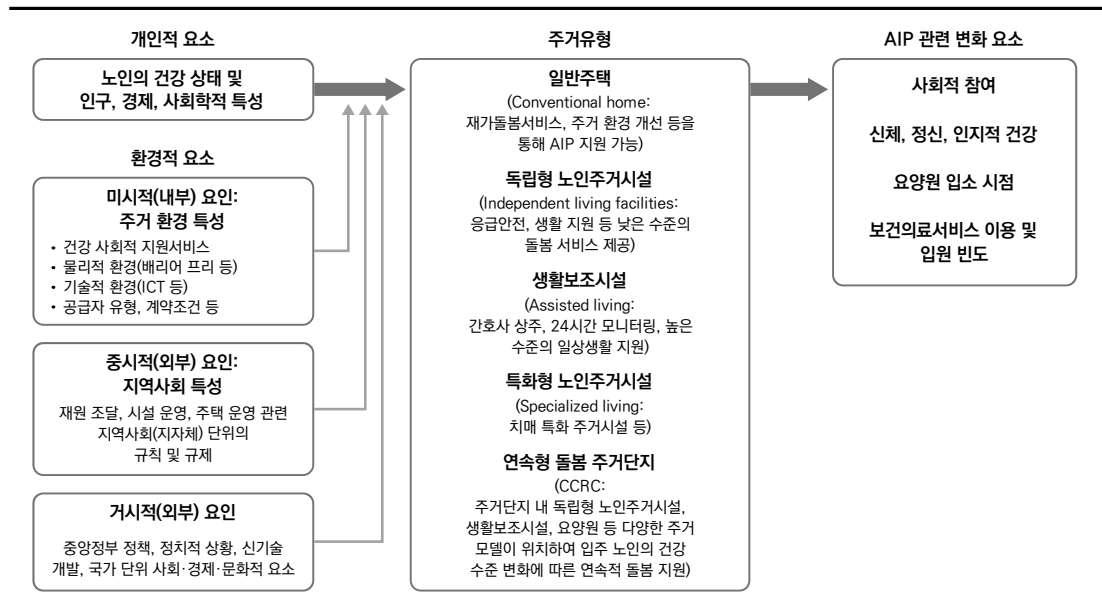
을 대상으로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을 내부적 요인(가사 도움,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 건강 모니터링,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물리적 주거 환경 등)과 외부적 요인(시설 운영 주체, 임대주택 유무, 계약 조건, 정부 지원 유무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주거 유형의 분류 기준을 더 세분화하였다. 이 외에도 입주비용과 주택에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미국의 주거 모델을 분류한 연구(Coe & Boyle, 2013; Golant, 2008)에서는 일반 주택과 요양원에 더해 독립형 주거시설(Independent Living Facilities), 생활보조시설(Assisted Living

Facilities), 연속형 돌봄 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개인-환경 적합성 관점과 기존 문헌을 통해 고찰한 주거 유형 분류 기준을 토대로 주거 기반 AIP 개념도를 제시한다(그림 1).

각 주거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으로 일반 주택(Conventional home)에 거주하는 노인은 돌봄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돌봄을 제공할 가족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할 때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그림 1. 주거 기반 AIP 개념도



자료: Lawton, M. P. (1990b). Knowledge resources and gaps in housing for the aged; Wahl, H. W., Iwarsson, S., & Oswald, F. (2012). Aging well and the environment: Toward an integrative model and research agenda for the future; Faulkner, D., Beer, A., & Hutson, M. K. (2006). Housing models for an ageing population; en Henegouwen, L. J. (2019). A Dutch framework for housing models to age in place; Coe, N. B., & Boyle, M. A. (2013). The asset and income profiles of residents in seniors housing and care communities: What can be learned from existing data sets; Golant, S. M. (2008). Affordable clustered housing-care: A category of long-term care options for the elderly poor. 재구성.

을 통해 재가복지서비스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이 지원된다. 두 번째 유형은 독립형 노인주거시설(ILF: Independent Living Facilities)이며, 주로 노인 전용 또는 노인 우선 입주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설 유형에는 대체로 서비스 연계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 인력이 상주하여 거주 노인의 욕구에 따라 필요할 때 외부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주로 사회적 서비스를 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한다(Wacker & Roberto, 2014). 입주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ILF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ILF도 기본적으로 개별 침실, 거실, 주방 등 독립적인 공간이 제공되며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전담 인력이 상주하여 입주 노인의 AIP를 지원한다(예: Section 202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세 번째 유형은 돌봄 욕구가 ILF 거주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이 입주하는 생활보조시설(ALF: Assisted living facilities)이다. ALF는 ILF에서 제공되는 독립적인 생활공간에 더해 강화된 의료서비스가 연계되는 유형으로 시설 내 간호사 등 전문의료 인력이 상주하여 24시간 모니터링 등 더 높은 수준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Kisling-Rundgren, Paul III, & Coustasse, 2016). 이 유형은 월평균 4,000달러 이상의 입주비용을 지불해야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입주하기 어렵다. 네 번째 유형으로는 특화형 노인주거시설이 있으며, 이 중 치매 특화형 주거시설(Memory care units)이 대표적이고 경우에 따

라 ALF에 결합되어 제공되기도 한다. 마지막 유형에 해당하는 연속형 돌봄 주거단지(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는 하나의 주거단지에서 ILF, ALF, 요양원에 이르기까지 입주 노인의 돌봄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유형을 일컫는다(AARP, 2022). CCRC는 ALF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입주 비용이 고가이며, 고소득 노인을 제외하고는 거주하기 어려운 주거 유형에 해당한다.

입주 노인의 욕구와 이에 대응하는 주거 유형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얼마나 적합하게(Fit) 제공되는지에 따라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관련 실증연구에 따르면, 입주 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적절히 연계될 경우 노인의 입원,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요양원 이주 빈도가 감소하고 예방적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가 증가하며 인지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한다(Castle & Resnick, 2016; Park, Kim, & Kwon, 2018; Park, Kwon, Kim, & Han, 2019; Sanders et al., 2015; Spillman, Biess, & MacDonald, 2012). 이러한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미국 내에서는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노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적절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서비스 연계 주택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Ewen, Emerson, Washington, Carswell, & Smith, 2017; Gusmano, Rodwin, & Weisz, 2018).

3. 미국의 노인복지서비스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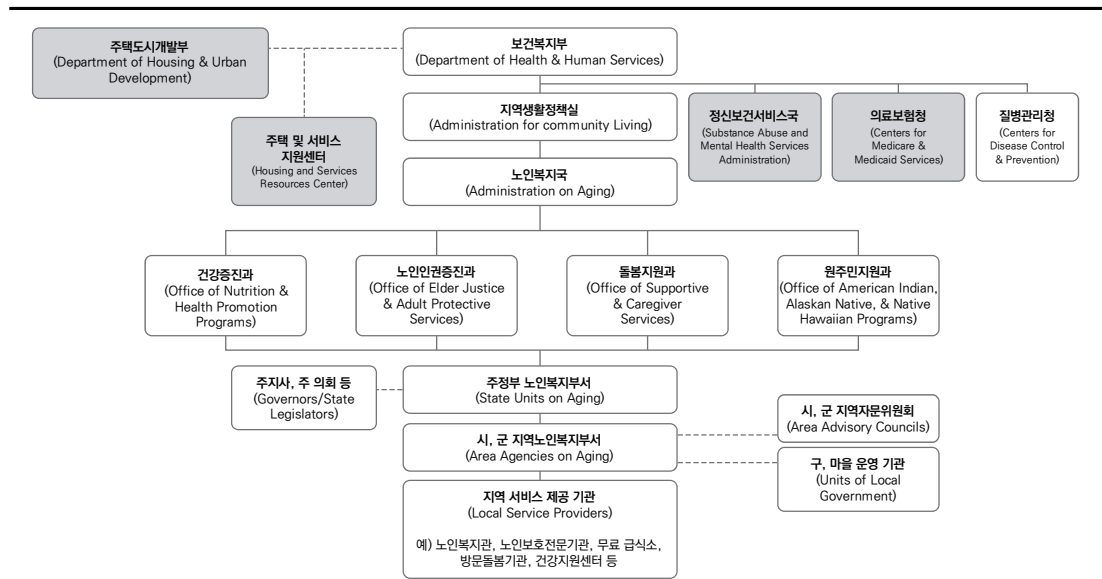
가. 미국 내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미국의 노인복지서비스는 크게 시설요양(요양원, 전문요양시설)과 재가요양(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구분되나(Administration on Aging, 2020), 재가와 시설돌봄 사이에 앞서 살 펴본 독립형 노인주거시설(ILF), 생활보조시설(ALF) 등 주거에 서비스가 결합한 모델이 있어 노인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변화에 연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Freedman & Spillman, 2014).

[그림 2]는 미국 내 노인복지서비스 개발과 전

달에 관여하는 주요 정부 부처를 도식화한 것이다. 재가 및 시설돌봄의 경우 주로 연방정부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지역생활정책실(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내 노인복지국(Administration on Aging)과 그 산하기관 및 부서에서 서비스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연계 주택의 개발, 임대료 지원 등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는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주정부 및 민간기관의 투자로 개발·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구분되는 데서 기인할 수 있는 서비스 분절화를 예

그림 2. 미국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도



자료: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nual. (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n.d). HHS organizational chart Office of Secretary and Divisions 재구성.

방하고 보건·복지·주거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2, 회색 음영 부분 참고). 부처 간 협력 사례는 이 장의 ‘다.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 사례’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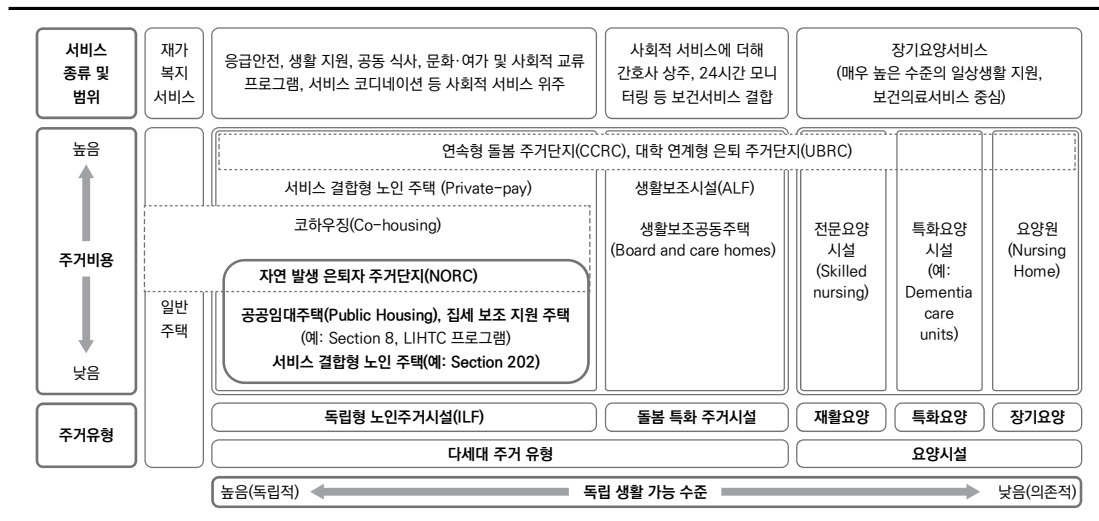
나. 미국 내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 주택 유형 및 주요 기능

1) 저소득 노인 대상 서비스 연계 주택의 유형
 [그림 3]은 소득과 독립생활 가능 수준에 따라 미국 내 노인 주거 유형을 분류한 도식에 해당하며,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하였다(Coe & Boyle, 2013; Golant, 2008). 이 글은 재가 및 시설돌봄 사이의 욕구를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연계 주택 유형에 초점을 맞추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주로 입주비용이 고가인 생활보조시설(ALF)이나 연속형 돌봄 주거단지(CCRC) 및 민간지불(Private-pay) 방식의 독립형 노인주거시설은 다루지 않는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 주택은 [그림 3] 내 ‘서비스 결합형 노인 주택’, ‘공공임대주택 및 집세 보조 지원 주택’, ‘자연 발생 은퇴자 주거단지’ 유형에 주로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1) 섹션 202 서비스 결합형 노인 주택 (Section 202: Section 202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는 Section 202 주택을 짓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에 보조금

그림 3. 미국 내 노인 주거 유형 분류



자료: Faulkner, D., Beer, A., & Hutson, M. K. (2006). Housing models for an ageing population; Coe, N., & Boyle, M. A. (2013). The asset and income profiles of residents in seniors housing and care communities: What can be learned from existing data sets; Golant, S. M. (2008). Affordable clustered housing-care: A category of long-term care options for the elderly poor. 재구성.

및 용자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노인(62세 이상, 지역 내 중위소득 50% 미만)을 위한 아파트 건립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주거 보장을 위해 월세는 가구 소득의 30%로 책정한다(Couch, 2021). 2021년 기준으로 Section 202 주택은 미 전역에 약 40만 호가 공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주거 유형이기는 하지만 단지 내 시장가격(Market-rate)에 따른 월세를 지불하는 노인이 거주하는 형태도 존재한다. Section 202 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 등 독립적인 생활공간이 보장되며 배리어 프리 설계, 개별 호실 내 24시간 응급 안전 벨 비치, 공동 식당 운영, 교통 지원, 각종 사회적 교류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의 특징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입주민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문인력인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노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등 주거 지원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Haley et al., 2008).

(2) 서비스 결합형 자연 발생적 은퇴 주거단지(NORC-SSP: Nation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 Supportive Service Programs): ‘자연 발생적 은퇴 주거단지(NORC: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는 노인들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 및 설계된 주거시설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인구의 밀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곳을 일컫는다(Hunt & Gunter-Hunt, 1986). 이 중에서도 NORC-SSP는 NORC 지역 거주 노인들에게 지역의 사회복지

및 보건 서비스(Supportive Service Programs)를 연계함으로써 입주민의 AIP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여가, 문화, 교육, 사회 참여 지원 등의 사회적 서비스와 건강검진, 건강교육, 운동 프로그램 등 건강 증진 서비스가 포함된다(Greenfield & Mauldin, 2017). 대표적인 NORC-SSP의 예로 뉴욕주(州) 맨해튼 지역의 펜사우스(Penn South)라는 NORC에 연계된 펜사우스 사회 서비스(PSSS: Penn South Social Services)를 들 수 있다. 펜사우스는 맨해튼에 거주하는 2,800여 명의 중간소득계층 입주민 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나, 주민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조합의 이사회에서 서비스 연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Altman, 2006). 그 결과, 펜사우스는 주민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여 PSSS라는 비영리 보건복지서비스 기관을 연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입주민에게 건강 증진, 사회적 교류 증진, 교육 문화,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 PSSS 등 NORC에 연결되는 비영리(주로) 서비스 기관은 주민과 지역사회 자원을 이어 주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며, NORC의 특성상 노인인구가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효율적이다(Mahmood, Seetharaman, Jenkins, & Chaudhury, 2022). 또한 정부 보조금이 운영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Greenfield, Scharlach, Lehning, Davitt, & Graham, 2013)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이 가

능하며, 중산층뿐만 아니라 중하위층 노인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Ivery, 2014).

(3) 주거기반 서비스 연계강화 프로그램(SASH: Support and Services at Home): SASH 프로그램은 미국 버몬트주(州)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노인 임대아파트의 서비스 연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1년을 시작으로 현재 5,000명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노인 주택 서비스 연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Kandilov et al., 2019). 이 프로그램은 주택 내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상주하지 않는 섹션 8 저소득층 임대지원 프로그램(Section 8: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저소득층 주택 세금 감면 프로그램(LIHTC: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등 저소득층 대상 집세 보조 지원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노인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노인의 사례관리 및 욕구 맞춤형 자원 연계를 담당하는 돌봄 코디네이터(Care Coordinator: 명칭만 다를 뿐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유사한 기능 수행)에 더해 보건의료 서비스에 특화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간호사가 상주한다. 이들은 팀 단위로 기능을 수행하며 입주민 돌봄 계획(Care Plan)을 협력적으로 수립하고,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협약을 추진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노력을 통해 입주 노인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

다. 또한 SASH 프로그램을 통해 배치된 간호사는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건강이 취약한 노인에게 투약관리, 건강 상담, 건강검진과 같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 연계함으로써 요양시설로의 이전을 늦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프로그램 평가 결과, SASH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과 비교하여 1인당 연간 약 1,450달러의 의료비 지출을 절약함으로써 의료보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2019).

(4) 지원주택 서비스 강화 프로그램(IWISH: Integrated Wellness in Supportive Housing): IWISH 프로그램은 버몬트주 SASH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2017년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에서 전국에 확대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Turnham et al., 2019). 2021년 주택도시개발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0개 노인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IWISH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앞서 살펴본 SASH 프로그램의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레지덴셜 웰니스 디렉터(Residential Wellness Director)’(주 40시간 근무)와 ‘웰니스 너스(Wellness Nurse)’로 불리는 간호사를(주 20시간 근무) 노인 임대아파트에 배치하여 주택의 서비스 연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Giardino, Vandawalker, Kappil, Robinson, & Roby, 2021). IWISH 프로그램은 입주민의 일차의료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

고 레지덴셜 웰니스 디렉터와 웰니스 너스의 협력을 기반으로 수립된 입주민 돌봄 계획(Care Plan)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건강,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조기 입소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2년 말에 프로그램 효과 분석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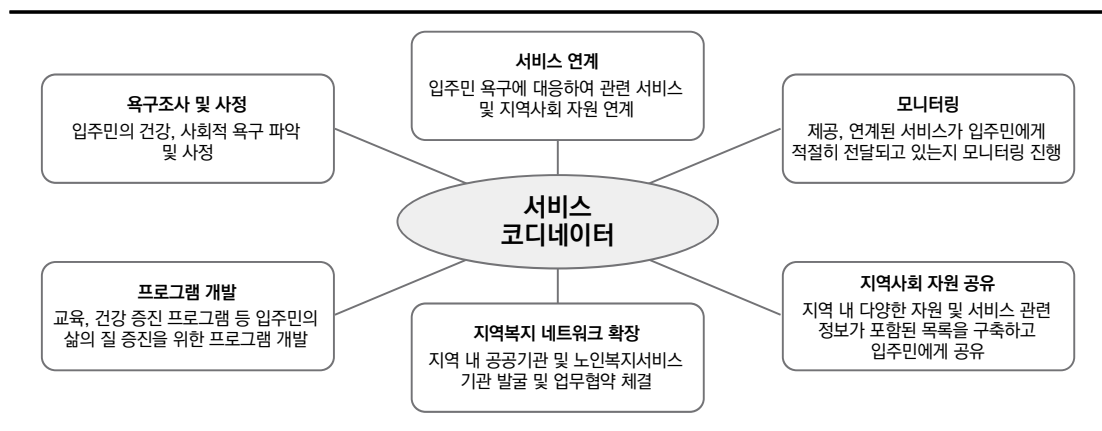
2) 코디네이션서비스 연계 주택의 주요 기능: 서비스

앞서 언급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 코디네이션은 서비스 연계 주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주거 지원 그 자체는 입주 노인에게 주거 및 재정적 안정을 가져다줄 수는 있지만, 주거 외의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가 없다면 그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비스 코디네이션을 통해 연계되는

서비스는 다양하며, 인지건강, 낙상 방지, 투약관리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입·퇴원 이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Weiss, Malone, & Walsh, 2015). [그림 4]는 주택도시개발부에서 정의하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주요 기능이다(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18a).

서비스 코디네이션은 NORC-SSP처럼 주택 외부의 사회서비스 기관 등과 연계하여 제공되기도 하지만,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지원하는 저소득 노인 대상 서비스 연계주택의 경우에는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배치된다(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d.). 대부분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배치되지만, 경우에 따라 시설의 운영비나 다른 프로젝트 펀딩을 통해 충당될 수도 있다(Sanders, Stone, & Hennessee, 2022).

그림 4.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주요 기능



자료: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18a). Chapter 2. Doing the Job of Service Coordination. 재구성.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대개 사회복지, 노년학, 상담 등 관련 경력 및 자격이 요구되며, 입주 노인에게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18b; Weiss et al., 2015).

다수의 실증연구를 통해 입주 노인에 대한 서비스 코디네이션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서비스 코디네이션(예: 건강교육, 운동 및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일차의료 지원, 정신건강 및 의약품 관리 서비스 등 연계)이 제공되는 서비스 연계 주택과 그렇지 않은 일반 주택 입주자의 의료서비스 활용 및 의료비 지출 경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통해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주택의 입주민은 응급의료 이용 및 급성질환으로 인한 입원 빈도가 낮았으며, 일차의료 및 예방적 서비스 이용 등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요양원 이주 사례도 상대적으로 적었다(Castle & Resnick, 2016; Gusmano et al., 2018; Sanders et al., 2014).

이렇게 서비스 코디네이션은 입주자와 서비스 시스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전달 및 연계하기 때문에 입주 노인의 성공적인 주거 생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입주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팀을 꾸려(예: 서비스 코디네이터,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

업치료사, 주택 수리 담당자 등) 더 폭넓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두드러지고 있다. 주택도시개발부분만 아니라 전국서비스코디네이터협회 등 민간 기관에서도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주 노인의 변화하는 욕구와 건강 문제(예: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 우울 및 고독감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서비스 패키지 구성 및 전달에 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Carder, Weinstein, & Kohon, 2012).

다.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 사례

미국에서는 주택 혹은 지역 내에서의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연방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상위 기관들이 협력하여 주거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에 신설된 주택 및 서비스 지원 센터(Housing and Services Resource Center)를 들 수 있는데, 이 센터는 미국 보건복지부와 주택도시개발부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으로 설립되었다(Housing and Services Resource Center, 2022). 이 기관의 주요 목표는 주거서비스와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부처 간 연계를 통해 입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취약계층(예: 노인, 장애인, 홈리스 등)의 AIP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동

안 주거 관련 정책과 보건·복지서비스는 제공 주체가 다른 데서 오는 서비스 분절성이 한계로 지적되었는데, 연방정부와 같은 상위 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주거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1). 현재 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주택도시개발부는 의료보험청(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과 정신보건서비스국(SAMHSA: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과도 활발히 연계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다소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각 부처의 주요 사업들을 연계하여 주거에 서비스가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개발부는 정신보건서비스국(SAMHSA)과의 협력으로 노숙인 및 약물중독 주민을 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사례관리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청(CMS)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저소득층, 이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주택 및 월세 지원에 식사 배달 등 돌봄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개발부와 보건복지부 간 파트너십은 정책 및 서비스 개발 연구 분야에서도 나타난다(Bipartisan Policy Center, 2018). 대표적인 예로, 주택도시개발부의 행정 데이터와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건강조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국민건강

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의료보험·급여 데이터 등 보건의료 데이터와의 연결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건강 수준 및 의료서비스 이용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증적 증거 기반 프로그램(Evidence-based program)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두 부서는 매년 공동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주거 및 보건복지 관련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교류하며, 각 부서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 공통 이슈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는 등 부서 간 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IWISH 프로그램도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논의, 개발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택도시개발부와 보건복지부 간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주체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었던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나가며: 미국의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 주택이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따라 장기요양 및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노년기 변화에 연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돌봄 사이에 서비스 연계 주택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주거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모델은 무료 또는 매우 낮은 수준의 입주비

용을 요구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공공임대 주택에 한정되어 있으며, 저소득 노인이 주로 입주하는 주거 유형은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주거서비스와 보건복지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상이하여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앞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 주택 개발과 발전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돌봄 욕구’가 있는 노인을 위한 주거 모델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이 무료로 또는 저렴한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이 서비스 연계 주택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유형별로 한계가 있다. 양로시설(무료)은 대부분 3~4인실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 노인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 부족하며, 노인복지주택은 1인 1실, 공동식사, 청소 및 세탁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평균 입주비용이 고가에 형성되어 있어 저소득층은 일부 극소수의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예: 세종시 밀마루 복지마을)에 입주할 수 있다. 고령자복지주택도 노인복지주택처럼 1인 1실이 제공되나 식사나 청소 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건물 내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

스를 이용하는 구조이다(강은나 외, 2019).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모델의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거복지서비스를 개발, 운영 중이나 이는 특정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다(이상림 외, 2016). 미국의 서비스 연계 주택은 공통적으로 입주 노인의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1인 1실이 지원되며,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연계되고 주택 자체적으로도 공동 식사 및 건강 증진,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연계 주택은 그 유형도 다양한데, Section 202처럼 주택 내에 서비스 코디네이션 및 다양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탑재된 모델도 있고, NORC-SSP 및 SASH, IWISH 프로그램처럼 기존의 임대주택에 민간 및 공공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보완한 모델도 있다.

둘째로, 서비스 코디네이션을 확대하고 주택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소득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에서는 시설 및 단지 내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또는 주거복지사가 입주민 민원 응대와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겸직 형태로 제공되고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서비스 코디네이션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사와 주거복지사의 업무 경계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이윤재, 2020; 최병숙, 권오정, 양세화, 은난순, 2015). 미국의 서비스 코디네이션은 주택 내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입주민의 욕

구 파악과 지역사회 자원 조직 및 서비스 연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전국서비스코디네이터협회) 및 공공 자원(주택도시개발부, 보건복지부)을 활용하여 관련 직무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코디네이션 모델(New Service Coordination Model)'을 통해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적극성을 강조하고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조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Sanders et al., 2022). 앞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서비스 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 주거시설 내 서비스 코디네이션 전담 직원 배치,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위한 양질의 교육 훈련 시스템 마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파트너십, 지역 행사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노인의 AIP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간의 칸막이 현상으로 서비스 연계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강미나, 차미숙, 김은란, 이재춘, 2021). 미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주택도시개발부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주거에 보건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난다. 두 부서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부서 신설, 교류 행사 추진, 주택·보건복지 데이터 연결을 통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미나, 차미숙, 김은란, 이재춘. (2021).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연계 강화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 강은나, 주보혜, 이재춘, 배혜원. (2019).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주거정책 개편 방안** (연구보고서 2019-25).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진, 박순미, 박소정. (2019). 고령자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위한 서비스 지원 주거 모델 개발 연구. **보건사회연구**, 39(2), 65-102. doi:10.15709/hswr.2019.39.2.65
- 박순미, 김유진, 박소정. (2017). 국내 노인주거복지서비스 현황 및 특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72(3), 395-428. <https://doi.org/10.21194/kjgsw.72.3.201709.395>
- 보건복지부. (2021a).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 (2021b).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

- U_ID=04&MENU_ID=0403&page=3
&CONT_SEQ=368540에서 인출.
- 서울특별시청 어르신복지과. (2020). **서울시, 주거+돌봄 '노인지원주택' 올해 90호 첫 공급...10.15~20 신청접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3093>에서 인출.
- 이상림, 강은나, 오신휘, 전홍규, 이한나, 박소정, 류승규. (2016).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 개발 연구**(연구보고서 2016-00).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2017).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연구보고서 2017-26).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이선희, ...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정책보고서 2020-35).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재. (2020).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의 업무 특성 분석 - 서울 J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1(3), 89-97.
doi:10.6107/JKHA.2020.31.3.089
- 최병숙, 권오정, 양세화, 은난순. (2015). 주거복지 현장의 전문인력 직무내용과 특성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129-137.
doi:10.6107/JKHA.2015.26.1.129
- AARP. (2022). How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work. *AARP*. Retrieved from <https://www.aarp.org/caregiving/basics/info-2017/continuing-care-retirement-communities.html>
- Administration on Aging. (2020). *LongTermCare.gov: Glossary*. Retrieved from <https://longtermcare.acl.gov/the-basics/glossary.html#long-term-care-services>
- Altman, A. (2006). *The New York NORC-supportive service program* (Policy Report). Retrieved from Policy Commons Website. <https://policycommons.net/artifacts/1180551/the-new-york-norc-supportive-service-program/1733680/>
- Andrews, G. J., & Phillips, D. R. (Eds.). (2004). *Ageing and place* (Vol. 9). London: Routledge.
- Bipartisan Policy Center. (2018). *HUD-HHS partnerships: A prescription for better health*. Washington, DC: Bipartisan Policy Center.
- Carder, P. C., Weinstein, J., & Kohon, J. N. (2012). The health and housing specialist: An emerging job classification to support aging in place in subsidized housing. *Institute on Aging Publications*, 16.
- Castle, N., & Resnick, N. (2016). Service-enriched housing: The staying at home program.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5(8), 857-877.
doi:10.1177/0733464814540049
- Coe, N. B., & Boyle, M. A. (2013). The asset and income profiles of residents in

- seniors housing and care communities: What can be learned from existing data sets. *Research on Aging*, 35(1), 50-77.
doi:10.1177/0164027511434331
- Couch, L. (2021). *Section 202: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Retrieved from https://nlihc.org/sites/default/files/AG-2021/04-13_Section-202.pdf
- Henegouwen, L. J. (2019). *A Dutch framework for housing models to age in place*. Retrieved from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A-Dutch-framework-for-housing-models-to-age-in-Henegouwen/db4dbf92d1f3fe545bf90d69afc4e0d462ca8987>
- Ewen, H. H., Emerson, K. G., Washington, T. R., Carswell, A. T., & Smith, M. L. (2017). Aging in place: community-based services and resources in residential settings among older adults. *Housing and Society*, 44(1-2), 114-126.
doi:10.1080/08882746.2017.1389577
- Faulkner, D., Beer, A., & Hutson, M. K. (2006). Housing models for an ageing population.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24(4), 152-156.
doi:10.1111/j.1741-6612.2007.00245.x
- Freedman, V. A., & Spillman, B. C. (2014). The residential continuum from home to nursing home: Size, characteristics and unmet needs of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9(Suppl 1).
doi:10.1093/geronb/gbu120
- Giardino, E., Vandawalker, M., Kappil, T., Robinson, A., & Roby, C. (2021). *Supporting aging in place through IWISH: Second interim report from the supportive services demonstra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 Golant, S. M. (2008). Affordable clustered housing-care: A category of long-term care options for the elderly poor.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2(1-2), 3-44.
doi:10.1080/02763890802096906
- Greenfield, E. A., & Mauldin, R. L. (2017).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through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NORC) supportive service programs. *Ageing & Society*, 37(10), 1987-2011.
doi:10.1017/S0144686X16000702
- Greenfield, E. A., Scharlach, A. E., Lehning, A. J., Davitt, J. K., & Graham, C. L. (2013). A tale of two community initiatives for promoting aging in place: Similarities and

- differences in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NORC programs and villages. *The Gerontologist*, 53(6), 928-938.
doi:10.1093/geront/gnt035
- Gusmano, M. K., Rodwin, V. G., & Weisz, D. (2018). Medicare beneficiaries living in housing with supportive services experienced lower hospital use than others. *Health Affairs*, 37(10), 1562-1569.
doi:10.1377/hlthaff.2018.0070
- Haley, B. A., Gray, R. W., Taghavi, L. B., Thompson, D. T., Devine, D., Haghghi, A. H., & Marcus, S. R. (2008). *Section 202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Program status and performance measuremen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Housing and Services Resource Center. (2022). *About the Partnership*. Retrieved from <https://acl.gov/HousingAndServices/Partners>
- Hunt, M. E., & Gunter-Hunt, G. (1986).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3(3-4), 3-22.
doi:10.1300/J081V03N03_02
- Ivery, J. M. (2014). The NORC supportive services model: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community aging initiatives.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22(4), 451-471.
doi:10.1080/10705422.2014.958635
- Kandilov, A., Keyes, V., Siegfried, N., Smith, K., Edwards P., Brophy, J., ... Stone, R. (2019). *Support and Services at Home (SASH) evaluation: SASH evaluation findings, 2010-2016*.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 Kisling-Rundgren, A., Paul III, D. P., & Coustasse, A. (2016). Costs, staffing, and services of assisted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 literature review. *The Health Care Manager*, 35(2), 156-163.
doi:10.1097/HCM.0000000000000107
- Lawton, M. P. (1982). Competence, environmental press, and the adaptation of older people. In M. P. Lawton, P. G. Windley & T. O. Byerts (Eds.), *Aging and the environment: Theoretical approaches* (Vol. 7). New York: Springer.
- Lawton, M. P. (1989). Environmental proactivity and affect in older people. In S. Spacapan & S. Oskamp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aging* (pp. 135-163). Newbury Park, CA: Sage.
- Lawton, M. P. (1990a). Residential

- environment and self-directedness among older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45(5), 638-640.
doi:10.1037/0003-066X.45.5.638
- Lawton, M. P. (1990b). Knowledge resources and gaps in housing for the aged. In: *Tilson D, Ed. Aging in place*. Glenview, IL: Scott, Foresman, 287-309.
- Lawton, M. P. (1999). Environmental taxonomy: Generalizations from research with older adults. In S. L. Friedman & T. D. Wachs (Eds.), (pp.91-12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10.1037/10317-004
- Lawton, M. P., & Nahemow, L. (1973). Ecology and the aging process. In C. Eisdorfer & M. P. Lawton (Eds.), *The psychology of adult development and aging* (pp. 619-67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10.1037/10044-020
- Mahmood, A., Seetharaman, K., Jenkins, H. T., & Chaudhury, H. (2022). Contextualizing innovative housing models and services within the age-friendly communities framework. *The Gerontologist*, 62(1), 66-74.
doi:10.1093/geront/gnab115
- OECD. (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doi:10.1787/ca401ebd-en
- Park, S., Kim, B., & Kwon, E. (2018). The role of senior housing in hospitalizations among vulnerable older adults with multiple chronic conditions: A longitudinal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58(5), 932-941.
doi:10.1093/geront/gnx046
- Park, S., Kwon, E., Kim, B., & Han, Y. (2019). Person-environment fit approach to trajectories of cognitive function among older adults who live alone: Intersection of life-course SES disadvantage and senior hous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4(6), e1-e12.
doi:10.1093/geronb/gbz025
- Sanders, A., Smathers, K., Patterson, T., Stone, R., Kahn, J., Marshall, J., & Alecxih, L. (2014). *Affordable senior housing plus services: What's the value*. Retrieved from LeadingAge LTSS Center:
<https://www.leadingage.org/sites/default/files/Housing%20Services%20Value.pdf>
- Sanders, A., Smathers, K., Patterson, T., Stone, R., Khan, J., Marshall, J., & Alecxih, L. (2015). *Service availability in HUD-assisted seniors housing: Findings from a survey on the availability of onsite services in HUD-assisted seniors housing*. Washington, DC: LeadingAge Center for Housing Plus Services.
- Sanders, A., Stone, R., & Hennesa, A.

- (2022). *Enhancing Service Coordination in HUD-Assisted Senior Housing Communities: Lessons for Implementation* (Research Brief). Retrieved from LeadingAge LTSS Center: https://ltsscenter.org/reports/Enhancing_Service_Coordination_in_HUD-Assisted_Senior_Housing.pdf
- Spillman, B. C., & Black, K. J. (2005). *The Size of the Long-term Care Population in Residential Care: A Review of Estimates and Methodolog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Disability, Aging, and Long-Term Care Policy.
- Spillman, B., Biess, J., & MacDonald, G. (2012). *Housing as a platform for improving outcomes for older renter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2019). *Support and Services at Home (SASH) evaluation: Highlights from the evaluation of program outcomes from 2010 to 2016*. Retrieved from <https://aspe.hhs.gov/reports/support-services-home-sash-evaluation-highlights-evaluation-program-outcomes-2010-2016>
-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nual. (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Retrieved from <https://www.usgovernmentmanual.gov/ReadLibraryItem.ashx?SFN=Myz95sTyO4rJRM/nhIRwSw==&SF=VHhnJrOeEAnGaa/rtk/JOg==>
- Turnham, J., Breunig, I., Giardino, E., Katz, G., & Alvarez, T. (2019). *Supporting aging in place through IWISH: First interim report from the supportive services demonstrat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n.d.). *HHS Organizational Charts Office of Secretary and Divisions*. Retrieved from <https://www.hhs.gov/about/agencies/orgchart/index.html>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04).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Section 202)*. Retrieved from https://www.hud.gov/sites/documents/19565_202_ELDERLY.PDF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18a). *Chapter 2. Doing the Job of Service Coordination*. Retrieved from <https://www.hudexchange.info/trainings/service-coordinators-in-multi-family-housing-online-learning-tool/2.1-what-is-service-coordination>.

- html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18b). *HUD's Service Coordinators in Multifamily Housing Program Resource Guide*. Retrieved from <https://www.nahma.org/wp-content/uploads/2018/08/Service-Coordinators-in-Multifamily-Housing-Program-Resource-Guide.pdf>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1). *HHS and HUD Announce Expanded Partnership, New Housing and Services Resource Center* (Press Releases No. 21-201). Retrieved from https://www.hud.gov/press/press_releases_media_advisories/hud_no_21_201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d.). *Service coordination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housing/mfh/scp/scphome
- Wacker, R., & Roberto, K. (2014). *Community resources for older adults: Programs and services in an era of change* (4th ed.).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Inc.
- Wahl, H. W., Iwarsson, S., & Oswald, F. (2012). Aging well and the environment: Toward an integrative model and research agenda for the future. *The Gerontologist*, 52(3), 306-316. doi:10.1093/geront/gnr154
- Weiss, L. J., Malone, M., & Walsh, K. (2015). *Value of Enhanced Service Coordination for American Association of Service Coordinators* (White Paper). Retrieved from https://cdn.ymaws.com/servicecoordinator.site-ym.com/resource/resmgr/Files/Useful_Links/Value_of_Enhanced_Service_Co.pdf

Senior Housing with Supportive Services for Low-income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Park, So-jung

Ryu, Byeong-ju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outh Korea is moving into a super-aged society with growing societal care costs for older adults. Various housing models with support and care for older people have been developed and promoted as an effective way of facilitating aging in place and delay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n older population. This study aims to review various supportive housing models for low-income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affordable senior housing developments in South Korea. The study highlights the roles of service coordination in the residential well-being of older residents in senior housing. Also, the official partnerships on the federal level were provided in this study, which interconnect housing, health, and social services.